

해외공사 수행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보고 절차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제반 보고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동법상 보고제도로는 △수주활동상황보고 △계약체결결과보고 △시공상황보고 △공사내용변경보고 △준공보고 등이 있다.

또한 해외건설업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수주활동상황보고 이다. 이 보고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 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내외 건설공사로 부터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는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신규등록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생략해 과태료 부과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보고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해외공사 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다.

해외건설 단계별 보고절차

① 공사정보 입수 및 수주활동

- 도급공사 :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 개발형공사 : 공사 시행개시일 20일 전까지
- 허위보고 및 미보고시 과태료 : 200만원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1조

② 계약체결

-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허위보고 및 미보고시 과태료 : 200만원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3조

③ 착공 및 시공

-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

- 허위보고 및 미보고시 과태료 : 200만원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

④ 공사내용 변경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허위보고 및 미보고시 과태료 : 200만원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8조

⑤ 준공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허위보고 및 미보고시 과태료 : 200만원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 실적신고 : 매년 초(1~2월) 전년도 공사수행(계약, 기성, 기성수령)이 발생된 모든 공사

※ 관련법령 : 해외건설촉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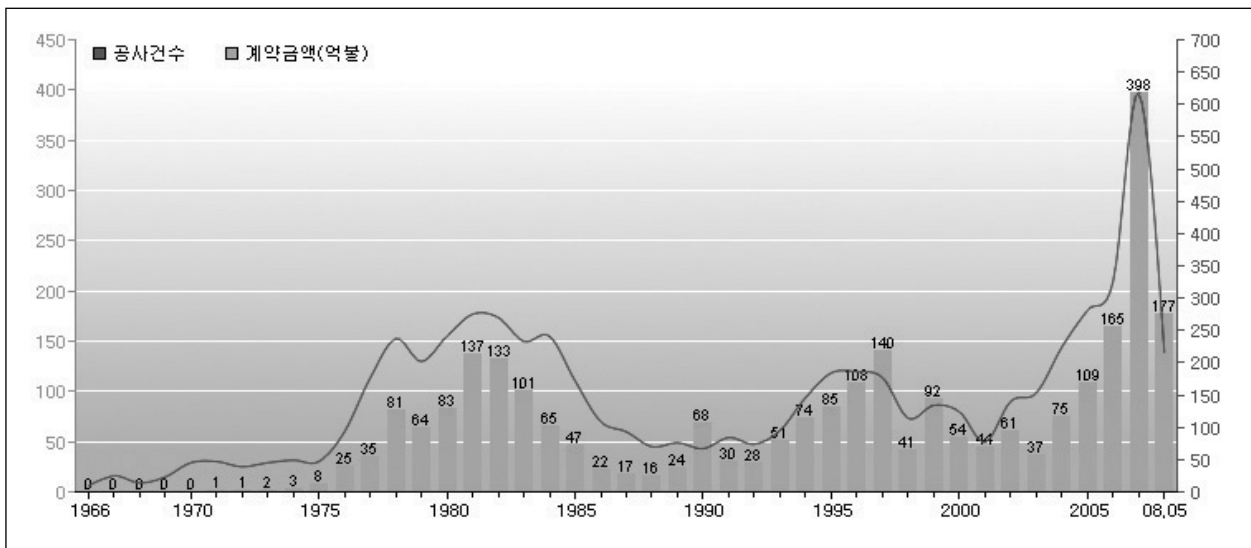
해외건설 현황

해외건설 총괄현황

(단위 : 천미불)

구분	총누계	2007년도 5월 현재(A)	2008년도 5월 현재(B)	대비율(B/A)
계약금액	270,174,156	10,884,269	17,691,869	▲163%
공사건수	6,209	186	216	▲116%

구분	2007년도 5월 현재(A)	2008년도 5월 현재(B)	대비율(B/A)
진출국가	44	49	▲111%
진출업체	91	120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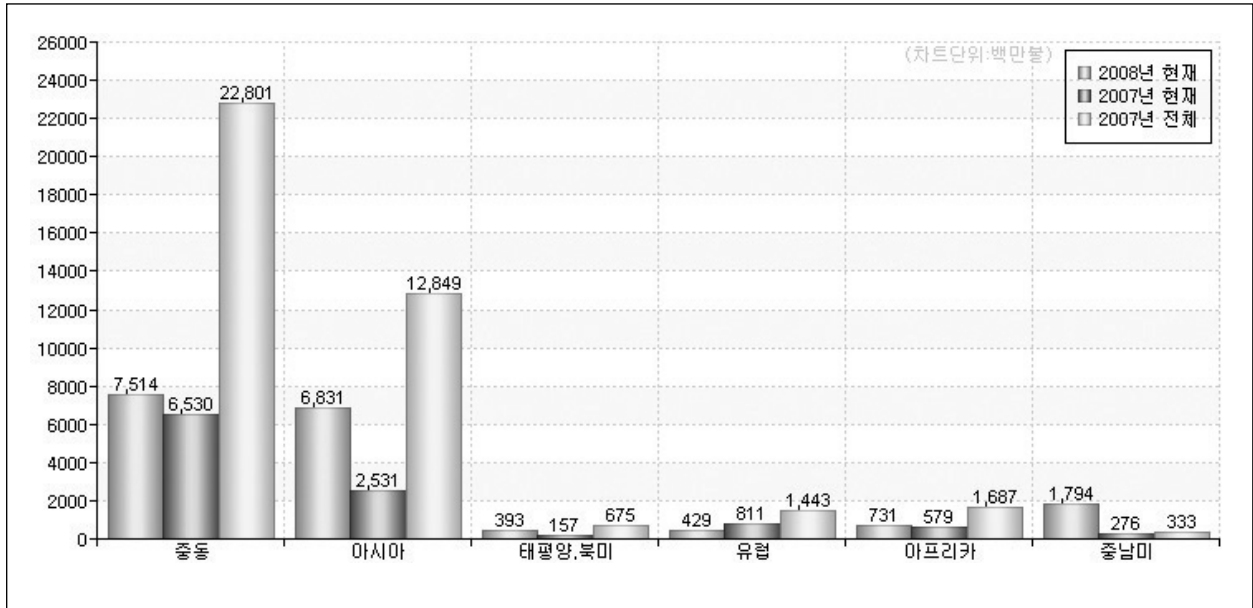


지역별 현황

(단위 : 천미불)

구분	합계	중동	아시아	태평양·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2008년도 5월 현재	17,691,869	7,514,252	6,831,268	393,146	428,682	730,778	1,793,743
2007년도 5월 현재	10,884,269	6,529,621	2,531,019	156,754	811,082	579,345	276,448
2007년도 전체	39,788,146	22,800,982	12,848,654	675,138	1,442,968	1,687,372	333,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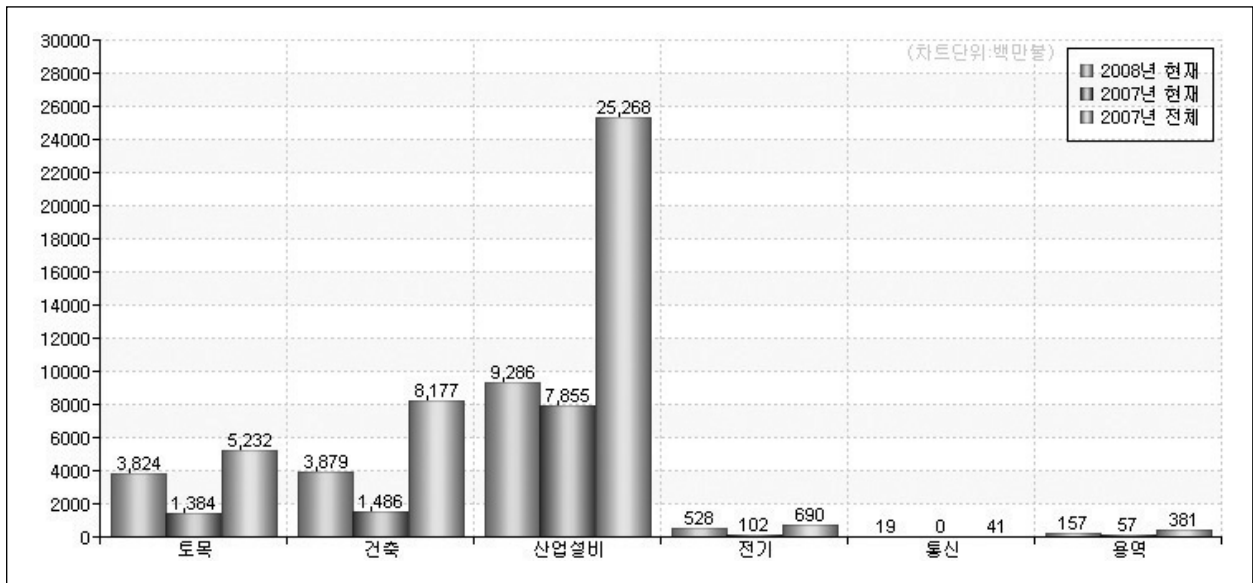
기획특집 해외건설



공종별 현황

(단위 : 천만원)

구분	합계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	통신	용역
2008년도 5월 현재	17,691,869	3,824,263	3,878,719	9,285,681	527,712	18,603	156,891
2007년도 5월 현재	10,884,269	1,384,049	1,485,835	7,854,794	102,304	0	57,287
2007년도 5월 전체	39,788,146	5,231,641	8,177,373	25,267,772	689,732	41,085	380,543



해외건설 지역별 계약현황

(단위 : 미천불, '08. 5. 19 현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우디아라비아	120,267	530,499	1,239,600	3,623,597	5,054,576	2,377,129
리비아	578,813	197,890	2,370	77,197	5,449,582	831,075
이란	835,678	296,435	619,655	401,191	287,194	216,312
기타	722,880	2,546,175	4,583,467	5,428,152	12,009,630	7,885,224
중동지역합계	2,257,638	3,570,999	6,445,092	9,530,137	22,800,982	11,309,740
말련	69,172	3,613	0	0	112,189	0
필리핀	88,484	219,491	39,779	563,821	1,351,713	1,262,110
인니	106,890	102,504	99,887	145,260	781,858	163,955
태국	195,875	193,822	940,781	392,903	2,021,076	661,095
싱가포르	1,925	-13,291	32,214	428,048	3,178,356	364,475
기타	706,673	1,769,040	1,498,666	2,516,131	5,403,462	4,560,514
아시아지역합계	1,169,019	2,275,179	2,611,327	4,046,163	12,848,654	7,012,149
태평양, 북미	81,020	96,021	155,681	379,010	675,138	398,242
중남미	813	39,345	197,582	442,881	333,032	1,795,693
아프리카	48,941	711,930	1,274,747	1,557,326	1,687,372	730,778
유럽	110,325	804,839	174,847	512,647	1,442,968	428,682
총계	3,667,756	7,498,313	10,859,276	16,468,164	39,788,146	21,675,284



동근 테이블에 앉으면 회의가 즐겁다? - 원탁의 기사

‘원탁의 기사’는 문학 작품만이 아니라 만화나 게임에도 자주 등장한다. 또 국제적인 대 회의를 흔히 ‘원탁회의’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원형 테이블에 앉아 하는 회의를 말한다. 동근 테이블에서의 회의는 공정성과 친밀감을 더해 준다.

원탁회의는 6세기경 영국을 지배하던 아서(Arthur) 왕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아서 왕은 영국만이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프랑스를 정복하고 로마를 격파해서 세계의 지배자가 된 전설적인 군주였다.

아서 왕 주변에는 훌륭한 기사들이 많았는데 왕은 그들을 신분의 고하를 불문하고 공평히 대우했다. 그리고 자리다툼이 일

어나지 않도록 대리석 원형 테이블을 만들어 둘러앉았다. 원형 테이블은 신분의 고하를 따질 수 없었다. 원탁의 기사단에는 용사들이 많아 늘 화려한 무용담과 아름다운 사랑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바로 여기서 ‘원탁의 기사’라는 말이 유래했다. 이 원탁의 기사와 아서 왕 전설은 12~13세기 유럽 각국으로 전해졌고, 많은 문인들이 이를 소재로 작품을 남겼다.

중요한 일을 토의할 때에는 동근 탁자에 앉으시라! 원탁의 기사들은 그렇게 조언한다. 그러면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

해외건설 국가별 계약현황

(단위 : 미천불, '08. 5. 19 현재)

	2006	2007	2008
카타르	1,314,354	637,520	4,291,569
사우디아라비아	3,623,597	5,054,576	2,377,129
카자흐스탄	287,460	330,609	1,738,146
U.A.E	572,500	5,585,297	1,605,314
칠레	368,000	82,022	1,305,269
필리핀	563,821	1,351,713	1,262,100
중국	493,135	699,527	1,236,687
쿠웨이트	1,982,057	1,725,515	1,081,344
리비아	77,197	5,499,582	831,075
태국	392,903	2,021,076	661,095
알제리	9,196	5,076	626,496
베트남	1,153,074	1,416,957	578,494
나이지리아	1,078,205	953,958	539,851
엘살바도르	0	0	487,984
스리랑카	111,331	26,000	396,527
싱가포르	428,048	3,178,356	364,475
괌(미)	28,382	55,334	298,211
오만	1,266,907	1,265,437	261,767
인도	226,942	1,846,486	254,843
폴란드	141,587	39,616	236,157
이란	401,191	287,194	216,312
인니	145,260	781,858	163,955
캄보디아	80,050	77,650	161,571
이디오피아	91,040	4,433	156,749
일본	18,632	111,957	126,006
러시아	293,880	705,945	115,879
미국	350,032	561,893	99,924
체코	0	355,757	64,078

	2006	2007	2008
파키스탄	21,851	210,198	23,139
앙골라	387,851	239,533	17,519
몽골	-3,208	86,213	16,027
마다가스	0	192,225	14,682
이라크	16,778	353,254	11,251
우크라이나	0	4,500	9,278
우즈벡	2,446	1,426	9,269
라오스	547	5,903	7,443
아제르바이	0	196,886	6,878
아프간	65,022	260,152	4,763
터키	0	21,500	4,338
요르단	1,791	207,848	2,501
루마니아	0	3,357	2,000
멕시코	74,873	55,860	1,950
독일	56,523	3,652	1,163
베닌	0	0	752
시리아	0	0	544
호주	2,393	1,257	489
감비아	0	0	475
볼리비아	0	0	365
케냐	0	1,985	203
모잠비크	0	0	135
영국	0	121	127
네팔	60	585	121
세네갈	0	1,299	118
루완다	0	0	115
동티모르	0	0	111
피지	0	0	107

	2006	2007	2008
수단	-14	79	100
탄자니아	0	1,013	90
가나	230	50,942	89
페루	8	81	63
자메이카	0	0	62
이집트	222,109	2,081,290	0
적도기니아	0	240,827	0
아르메니아	0	205,556	0
트리니다드	0	175,985	0
키르기즈	0	127,781	0
슬로바키아	20,483	117,723	0
바레인	957	112,682	0
말련	0	112,189	0
사이판	0	57,911	0
니카라과	0	17,200	0
레바논	0	8,058	0
타지키스탄	0	6,000	0
예멘	41,517	5,958	0
대만	0	2,770	0

	2006	2007	2008
온두라스	0	1,579	0
지브티공화국	0	1,200	0
방글라데시	15,032	815	0
헝가리	0	561	0
에스토니아	0	180	0
미얀마	0	176	0
브라질	0	175	0
과테말라	0	130	0
팔레스타인	0	116	0
홍콩	41,364	114	0
팔라우	596	0	0
그루지야	174	0	0
이스라엘	0	0	0
마카오	0	0	0
에콰도르	0	0	0
파푸아	0	0	0
에리트레아	0	-43	0
총계	16,468,164	39,788,146	21,675,284

산업설비 기간별 계약현황

(단위 : 미천불, '08. 5. 19 현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발전소	979,022	430,923	1,427,071	831,610	8,468,661	4,908,489
가스처리	742,414	740,479	507,790	2,385,598	802,671	1,015,705
일반공장	9,351	17,176	149,303	13,767	209,735	1,529
기타	760,685	3,993,340	6,178,711	7,689,267	15,786,705	6,765,698
합계	2,491,472	5,181,918	8,262,875	10,920,242	25,267,772	12,691,421